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선임 등 마쳐

남원시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선임 등 현장지원센터를 먼저 구축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예술로 되살아가는 도시공동체 남원』을 비전으로 구역사부지, 남원읍성 터, 광한투입 주변을 아우르는 원도심 지역(중충동, 죽향동 일원)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국·도비 6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도시재생사업 광한투입권에 집중된 관광객을 복원 거점지인 구역사부지 인근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매력 있는 시설과 보행루트 개발에 구도심을

하나의 관광목적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중심 전략으로는 뒷심 좋은 주민 공동체, 살만한 동네, 돌아온 관광객·회복되는 근린상권, 예술인과 함께 가는 재생길이라는 4가지를 설정했다.

또, 현장지원센터를 핵심거점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배움나무(주민학교), 사람나눔(집수리 지원), 춘향이 시집가는 날(전통혼례, 신혼 재현 축제), 춘몽거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예가탑길 사무국 건물을 현장지원센터의 거점 공간 확보하고,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적

견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북대학교 김현숙 교수를 사업총괄코디네이터(현장지원센터장)로 선임했다.

남원시는 행정협의회를 구축해 부서 간 업무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존의 주민협의체를 계승·발전시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주민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 역량강화 활동, 도시재생대학 등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자생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31일 확정됐다. /남원=유영철 기자



(재)베리&바이오희식품연구소가 고창의 특산물인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섰다.

고창 특산물 복분자·풍천장어 적극 홍보

베리&바이오희식품연구, 여행·음식 전문 파워블로거 팸투어

(재)베리&바이오희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고창의 특산물인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섰다.

연구소는 여행과 음식 전문 파워블로거 30여명을 초청해 '고창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블로그 서포터즈' 창간식을 갖고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6일 전했다.

'고창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서포터즈'들은 팸투어를 통해 부안면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일대를 방문해 복분자 발효식초 공정과 복분자짜주 공정장학과 장어 요리 시식, 복분자효

소만들기 체험과 세계유산 고창고인돌 유적 탐방 등 알찬 시간을 보냈다.

서포터즈들은 최고의 건강식품인 고창 복분자와 장어 요리로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겠다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치유음식의 고장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의 아름답고 청정한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팸투어는 고창군과 베리&바이오희식품연구소가 수행하는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북도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음식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복분자와 장어를 활용한 새로운 음식 등 가공식품을 연구·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소는 복분자·장어의 건강기능성 입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 외식업소를 대상으로하는 푸드테라피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블로그 서포터즈 창단을 계기로 우리지역 고품질 농산물을 소재로 독자적인 푸드테라피를 만들어 푸드테라피 6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관광명소 탐방 시티투어 버스 운행

11월말까지 매주 토·일

'치즈테마파크'와 '육정호 드라이브 코스' 등의 관광지로 유명한 임실군의 주요명소를 버스로 탐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활성화가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1월말까지 매주 2회(토, 일) 관내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명소탐방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티투어 버스는 전주한옥마을(르윈

호텔)을 출발해 '임실치즈테마파크', '섬진강 구담마을', 진피마을(김동택 문학관), '섬진강畔 물문화관' 등 군의 주요명소를 경유하며 특히 섬진강 관광에 이어 시인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마련돼 또 다른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전망이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가 버스에 동승해 군의 역사, 문화, 관광명소 등을 쉽게 소개해 편의성을 높이고 홍보 동영상 시청, 안내 책자 배부 등을 통

해 거부감 없는 군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시티투어 버스는 식사비용 등을 제외한 시티투어 참가비용이 성인 기준 7,000원, 경로 및 아동은 6,000원, 전북관광패스 소지자는 50% 특별할인이 적용된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운행에 관련한 문의 및 접수수를 비롯한 자세한 일정 확인은 남부여행 (☎063-287-9300) 또는 시티투어 홈페이지(www.nambutour.com)를 통해 가능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금과 정문등·동계 구송정 마을숲 복원

순창군이 250년 역사의 소나무 숲인 금과 정문등과 동계 구송정 마을숲 복원을 완료했다.

군은 지난해 금과면 고례리 마을숲인 정문등과 동계면 서호리 구송정을 전통숲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국비 3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마을숲을 복원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변 경관과 연계해 산림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주

내용은 나무의 전체수형 및 가지밀도를 조절하기 위한 전기전정, 수간 부패부위 외과수술, 나무뿌리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양개량 등 훼손된 소나무들이 제 모습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

또 구조조 및 절목 등을 식재해 경관 개선에도 신경을 썼다.

동계 구송정은 동계 서호마을에 위치한 자연발생 유원지로 캠퍼스들과 나들이객들이 자주 찾는 장소다.

나무 둘레가 약 5m나 되는 소나무 등 아름드리 소나무가 많아 특히 경관이 아름답다. 군은 이번 사업 완료

로 주민들의 쉼터로서의 기능은 물론 경관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문등은 금과면 고례리 363-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수령 100년에서 250년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41주가 있다. 백중 추석에는 씨름과 들놀이, 밀치기 등 마을공동체 문화의 중심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전통숲 복원사업 추진을 통해 그동안 훼손이 진행되던 소나무들이 제 모습을 찾아 마을 문화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120 민원봉사대' 운영

매주 화·목요일 방문... 전기 등 226건 민원 해결

남원시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세세히 살피는 '120 민원봉사대'를 운영해 희망과 나눔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120 민원봉사대'는 시민의 불편사항과 전기·보일러·가스·문고리 보수·수도 등 자체수리 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세대의 가사생활서비스를 필요로 한 시민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원봉사대는 올 상반기에 생활민원 151건, 120회에 걸친 생활현장투어를 통해 226건의 민원을 해결하였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 봉사대는 6개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화·목요일 1개 마을씩 총 30개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소외계층의 전기, 가스 안전점

검과 수도 정비, 갑갑이봉사, 문풍지 설치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마을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마을 봉사를 함께하고 있다.

특히, 선원사 자장면봉사대 자장면봉사, 전라북도립 장애인복지관 쌀배봉사, 보건소 한방봉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봉사 팀이 참여해 308세대에 3,187건의 주민간 강강진 및 노후시설을 교체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120 민원봉사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 시민 눈높이 맞춤형 봉사행정에 중점을 두어 세세히 살피는 섬김 행정 실천에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의회 문영두 의장 만장일치 선출

임실군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에 문영두 의원(53,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다.

6일 군의회는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7대 임실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문영두 의원을 의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임실군은 8명의 의원이 전원 참석하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문영두 의원이 당선됐다.

또,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선거에서는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에 김광중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엔 유정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제7대 임실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문영두 의장은 "군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더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 의장은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임실군의회 의원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약속하되새기며, 군민들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초심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진남근 의원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장을 도와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임실군과 군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7대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인 7일부터 시작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문영두 의장



진남근 부의장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 의장은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임실군의회 의원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약속하되새기며, 군민들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초심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진남근 의원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장을 도와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임실군과 군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7대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인 7일부터 시작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담바우체험마을을 마을공방 육성사업 선정

고창군(군수 박우정) 심원면의 담바우체험마을이 '2016년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공동작업장(마을공방)을 설치해 취약계층의 기술습득을 지원하고 일자리창출과 마을공동체를 복원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심원면 담바우체험마을을 포함해 전국에서 15개 사업이 접수됐고 행정자치부의 사업 타당성, 일자리 창출 가능성, 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등의 평가를 거쳐 7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귀농인과 원거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심원면 담바우체험마을은 담바우목공

예(대표 공성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목공예 기술을 전수받고 주민이 직접 목공예품을 제작해 판매할 계획이다.

또 방문객들이 체험 목공예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장을 운영하고 담바우 블루베리, 복분자따기 등 농산물수확체험과 바지락캐기, 노랑조개캐기, 어망체험 등 갯벌체험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마을공방사업을 통해 마을소득 증대와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주민이 화합하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돌리사

임실 대도엔지니어링 장학금 기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관내 기업들의 장학금 기부가 잇따라 임실교육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임실을 소재 종합건설법인(유)대도엔지니어링 최기영 대표(6일 군수실을 찾아 (재)임실군애향장학회이사장(심민 임실군수)에게 3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기영 대표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인생선배이자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수한 청소년들이 양질의 교육과 장학혜택을 받아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인재로 양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민 (재)임실군애향장학회 이사장은 "명품 임실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장학사업에 보내준 최기영 대표의 관심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재)임실군 애향장학회는 지난 1995년 6월에 설립돼 현재까지 35억 1천 3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으며, 1996년부터 애향장학회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천여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1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나대지에 나눔 숲 조성

고창군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부근의 나대지에(고창읍 을계리 100번지) '나눔 숲'이 조성된다.

군은 이번 '나눔 숲'이 복권수익금으로 마련된 산림청 녹색사업단 기금으로 조성되며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녹지환경을 개선해 군민 여가활동과 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6일 전했다.

군은 지난해 녹색사업단에서 주관한 '2016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2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중 숲 상반기에 8000만원을 투입해 상하면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 마을'에 나눔 숲을 조성했고 이번에 1억4000만원을 투입해 종합사회 복지관 나눔 숲을 조성했다.

종합사회복지관 나눔 숲은 실시설계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5월초 공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8월 말 완공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순창울크린 사회적기업 인증

순창군의 재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순창지역재활센터(센터장, 한승연) 재활기업 7호인 (유)순창울크린이 2016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유)순창울크린은 2011년 1월 순창지역 재활센터의 사회적기업지원 사업단으로 시작해 2012년 1월 시장진입형으로 진입에 성공했고 2014년 10월 재활기업으로 성장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및 자립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순창군은 (유)순창울크린 업체에 기업으로서의 성장 및 자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대 농경학과, 지사면 농촌봉사

전북대학교(대표 노시현) 농경경제학과 학생 20여명이 지난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지사면 영천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에 나섰다.

학생들은 영천마을 십이연주교를 방문 자센터에서 숙식을 하며 고추 줄매기, 모종이식, 잡초제거, 마을주변 환경정비 등 다양한 농·작업봉사활동을 펼치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농월에 참가한 학생들은 "땀은 힘이지만 보람은 크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어르신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농촌을 알아가는 계기로 삼았다"고 말했다.

백종완 면장은 "무렵고 굶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봉사활동에 나서준 덕분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학생들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농촌과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